

[종합·해설]

鄭 “李는 피의자” 李 “총선용 구태”

제17대 대선 투표일을 이틀 앞둔 17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은 막판 이슈로 부상한 BBK동영상과 이명박 특검법 통과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주요 후보 막바지 총력전=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오전 서울 은평소방서 방문 직후 “국민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그런 지도력으로는 제2의 님승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 직후 성남 유세에서 “이명박 특검법”이란 것은 이명박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법”이라며 “오늘도 이명박씨는 후보가 아니라 ‘이명박 특검법’의 범죄 피의자일 뿐”이라고 격려한

‘BBK 동영상’ ‘李 특검법’ 기싸움 치열 昌 “李 당선된다 해도 곧바로 물러날 것”

을 날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시 익산문화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상장은 전국 4대 강 중 가장 오염이 많이 돼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예산으로 곧바로 영산강 운하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당선 직후 곧바로 광주를 방문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방 마지막 유세를 호남에서 한 것

은 그만큼 호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다는 증거”라며 “호남인들이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이날 저녁 KBS 1TV 방송연설을 통해 “이명박 후보는 BBK에 문제가 있으면 당선 이 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으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특검이 진실을 밝힐 것이고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되자마자 물러나는 사상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BK 특검법 통과 반응=신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특검법 통과로 하늘이 분노하고 땅이 눈물 흘릴 거짓말과 억지로 역사의 반역이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을 댈 만큼 이제 위대한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신당의 태도는 못 먹는 감에 재나 뿌리겠다는 그런 심보다”고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사퇴 촉구 삼보일배

2008년도 광주·전남 총학생회장 당선자 10여명은 17일 이명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광주일고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금남로 인도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이날 삼보일배에는 지난 87년 6월항쟁을 이끌었던 30~40대 직장인들도 함께 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李, BBK 책임지고 사퇴하라”

광주·전남 사회단체·대학 총학 등 촉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설립 발언’이 담긴 동영상 공개되면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총학생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를 비난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광주·전남 지역 10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부패국민행동 광주·전남연대’는 17일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검찰은 BBK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명박 후보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부여했고 최근에는 명백한 증거인 광운대 동영상까지 드러났는데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검찰은 BBK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특검을 통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이날 오후 6시 광주 동구 민주의 종각 앞에서 ‘부패정치 청산·정치검찰 규탄 범시민 촛불집회’를 가졌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학생회장 당선자와 지난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30~40대 직장인 등 100명은 이날 이명박 후보 사퇴와 청년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광주제일고 앞에서 옛 전남도청 앞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전남선대위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후보는 대국민 사기행각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며, 이회창 후보 광주·전남선거대책본부 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정권교체 결기대회’에 참석, 이명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식별식을 갖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李후보 지지 선언에 명단 포함 도용된 것”

광주·전남 대학교수 33명

일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광주·전남 대학교수들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대 조승현 교수, 조선대 이성연 교수 등 광주·전남 지역 7개 대학 33명의 교수는 17일 오전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 선언 1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발표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남 교수단’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가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수들은 명의를 도용하여 지지 명단을 발표한 책임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 한나라당 당사에서 일부 5·18 관련자들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5·18 관련자 110명과 함께 공개한 광주·전남 교수단 158명에 포함됐었다.

/강필삼기자 kps@kwangju.co.kr

■ 민주당 와해 위기 왜?

이인제 후보가 대선 막판 후보단일화를 거부함에 따라 이상열 의원(목포시)이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원외지구당 위원장, 당직자들도 잇따라 탈당 대열에 가세함으로써 민주당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했다.

17일 민주당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갖고 마치 막으로 이인제-정동영 후보의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사실상 대선 막판 후보 단일화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최인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 직후 이인제 후보와 심야 회동을 가졌으나 이 후보가 대선 완주 의사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후보단일화가 무산됐다.

지도부 안이한 인식 붕괴 자초

이인제 완주 고집 단일화 무산도 한 몫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대표적 사퇴를, 최인기 원내대표는 탈당을 거론하면서 이인제 후보를 설득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동영-이인제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5일째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던 이상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룸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정동영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그동안 민주당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박상천 대표와 이인제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작은 것에 얽매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당 지도부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탈당 사유를 밝혔다.

또한,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윤철상 연청 중앙회장, 유덕열 사무부총장, 최중근 남원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등도 이날 이 의원과 함께 동반 탈당했다.

장홍호 광주 서구지역위원장과 광주 서구의회 김복일·장재성 의원, 당직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민주 정통성 보존과 계승을 위해 5천여명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떠나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남도의회 이영운 의원도 이날 민주당을 탈당, 민주신당에 입당했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90% 이상을 차지했던 전남도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는 민주당 22석, 민주신당 26석으로 완전히 역전됐다. 전갑길 광산구청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범여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당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인기 원내대표는 당분간 민주당에 머무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9 해삼도 공립학교 (유치원·초·중·고·특수·보통)

교사임용시험?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2009학년도 임용시험 30일간 전행으로 진행됩니다.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무소속계열합격

신원리 행정국회, 윤지복 행정성별, 양영희 행정통과

다 캐내영고시학원 ☎ 529-0090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원격리선 플러머드 발발하며! 인기 히터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원격리선 프러머드 열악하며! 화력 조절과 원거리 원격 난방까지

고효율의 특이 기술력! 원세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무등산업

고유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동해고속도로 개통을 맞아 심야 전기 보일러를 398만 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대상은 심야 전기보일러를 구매하시는 고객으로, 심야 전기보일러 구매 시 398만 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대상은 심야 전기보일러를 구매하시는 고객으로, 심야 전기보일러 구매 시 398만 원에 특별공급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심야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대상 심야

문의 ☎ 010-9469-9373 (062)673-4981